

집중호우 시민 피해 예방 총력 대응

우범기 전주시장, 전주천·삼천 일대 세월교·산책로·언더패스·주차장 등 비상 점검

전주권역에 최근 며칠 동안 장맛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호우피해 우려가 있는 하천과 공사 현장 등을 찾아 시민 안전을 위한 비상근무 상황을 점검했다.

우 시장은 지난 9일 전주권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것에 이어 이날(10일) 오전까지 호우경보가 이어짐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당장 우 시장은 출근과 동시에 기상 특보 상황에 맞춰 시청 8층에서 운영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현재 강수량과 장마전선의 이동 경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근무 상황을 진두지휘했다.

우 시장은 이어 도토리골 급경사지와 아홉호수길 급경사지 등 많은 비로 인한 토사 유실·유출 위험이 큰 하천 주변 공사 현장을 돌면서 공사 중단 여부를 비롯한 안전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전주권역에 최근 며칠 동안 장맛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호우피해 우려가 있는 하천과 공사 현장 등을 찾아 시민 안전을 위한 비상근무 상황을 점검했다.

동시에 최근 연일 계속된 비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된 △명성강변 아파트 앞 징검다리 △777타워 앞 징검다리 △서신 이편한세상 아파트 인근의 징검다리 △전산천 세월교 등

의 통제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곳에서 우 시장은 통행을 막는 차단시설과 안내판, 구호장비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의 소중한 생

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난 9일 오후부터 전주천·삼천 내 산책로를 모두 통제했고, 같은 날 남부시장 둔치 주차장도 통제 및 차량 이동 조치를 완료했다.

뿐만 아니라 10일 오전 3시30분부터 삼천·전주천 내 언더패스 전 구간을 통제하고 있으며, 전주천 쌍 다리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접수된 호우피해 상황은 하천 주변 나무 쓰러짐이나 우수관 막힘으로 인한 일시적인 침수 등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우범기 시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전주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역에는 지난 9일 0시부터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누적 157.5mm, 시간당 최대 33.8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김옥기 기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10일 전북 북동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어 발생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했다.

이재민 긴급구호활동 전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긴급구호세트·생수 등 지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10일 전북 북동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어 발생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익산시 망성초, 성북초에 긴급구호세트 55개, 필터 28개, 생수 및 간식을 지원했다. 또한, 광주·전남지사와 협업하여 완주군 화산면 사무소에 긴급구호세트 72개를 추가적으로 지원 할 예정이다.

피해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익산지구협의회 봉사원, 재난대응봉사회 봉사원, 전북재난심리회복지

원센터 심리활동가를 비상소집했으며, 일시 대피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와 담요, 구호의류, 일용품 세트로 구성된 긴급구호물품을 남·여 구별하여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선홍 회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재난상황실과 정보 공유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심리지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성과 공유

탄소중립·농업 발전 등 시장 적용 방안 위한 보고회 가져

전주시의회가 10일 공무국외출장 성과 공유와 함께 시장 적용 방안을 위한 보고회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프랑스와 벨기에, 네덜란드로 공무국외출장(2조)을 다녀온 의원들이 성과공유를 위해 나섰다.

이들은 국외출장 기간동안 지속가능한 도시농업과 스마트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업정책, 스마트팜,



전주시의회가 10일 공무국외출장 성과 공유와 함께 시장 적용 방안을 위한 보고회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협력체계 벤치마킹, 재생에너지와 교통 플랫폼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정책 등을 분석·연구했다.

특히 박선전 연수단장과 김성규·이국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내용과 전주시의 도입 과제에 대한 개별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거점시설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 △전주시 농산업 발전을 위한 네덜란드 사레 탐구 △과리와 네덜란드의 지속가능성 △골드프라이앵글을 통한 협력체계 △네덜란드 농업정책과 스마트팜 발전 방향 △농업강국이 된 네덜란드 등이다.

박 단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의 성과를 의정활동은 물론 전주시의 각종 정책과 사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효자2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 빗물받이 정화 나서

효자2동 새마을협의회(회장 김영술)와 새마을부녀회(회장 권현숙) 연합으로 장마철을 대비하여 관내 빗물받이 청소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배수시설인 빗물받이가 낙엽이나 담배꽂초, 쓰레기 등으로 막혀 침수 피해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정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

지이다. 김영술 회장은 "깨끗한 우리 동네를 만들어서 장마철 피해가 없도록 빗물받이를 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며 전했으며, 권현숙 회장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효자2동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 연합으로 장마철을 대비하여 관내 빗물받이 청소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완산소방서, 집중호우 피해 안전사고 주의 당부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 곳곳에 나무가 쓰러지고 지반이 약해지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내용은 △기상상황 귀 기울이기 △침수 위험 지역 이동 자제 △집 주변 배수로 확인 △비탈면 가지 않기도 이다. /김옥기 기자

이와 더불어 전주완산소방서는 관내 언더패스, 교량 통제 상황을 확인하며 순찰활동을 강화했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사고 위험이 증가하니 주변을 한 번 더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